

초등학생의 공감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김은영** · 김응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또래 관계 애착과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초등학생의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초등학생들이 교사의 수직적인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코칭 기술을 사용하여 초등학생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PLUS 코칭 대화 모델을 사용하여 초등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줌으로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공감을 내면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코칭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사전, 사후로 나누어 검사하였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의 점수가 고르게 높아졌다는 것은 공감코칭프로그램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가 적절히 안배되어 진행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코칭 대화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내적 통제성을 강화하여 공감 능력을 향상해 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본 연구자의 프로그램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초등학생들의 공감코칭프로그램의 필요와 그 활용 가치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초등학생, 공감, 코칭, 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

논문 투고일 : 2023. 10. 31. 최종심사일 : 2023. 11. 29. 게재확정일 : 2023. 12. 13.

* 이 논문은 2019년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임.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박사과정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im, Eung Ja,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Daehak-Ro Seonghwan-eup, Choongnam, Korea. 31020. E-mail: eungja21@nsu.ac.kr

I. 서론

초등학생 고학년 시기의 학생들은 인지적 능력 발달과 더불어 논리적인 사고력이 향상한다. 이와 더불어 감정조절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엇이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에 반응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더 잘 해석하게 됨에 따라 이 시기의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 이해, 감정인식과 조절능력이 향상하며 문제 상황의 파악과 해결책 찾기도 유능해진다(노혜영, 2015). 그러나 인지적 사고와 정서를 다루는 능력이 미숙하여 초등학생들은 또래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괴롭힘 등에 의한 부적응과 높은 자살률 등의 사회적 문제도 공감의 결핍으로 볼 수 있다(허순향 외, 2019).

2019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1.4%로 2018년에 비해 2배 가깝게 증가하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 폭력인 신체 폭행,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 비중의 증가와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교육부, 2019). 이러한 다양한 문제는 과도한 폭력이 담겨있는 게임이나 웹툰, SNS 등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자기조절능력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에 초등학생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대인관계발달 특성상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의사소통훈련을 통해 기능적 의사소통능력의 밑바탕이 형성되는 시기이다(임선숙, 2017). 이에 공감훈련은 아동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반응하는 공감적 반응의 표현능력을 길러 학생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다(신민정, 2017).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공감훈련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권현숙, 2015; 김신영, 2017; 한경인, 2014)고 제언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학제 기간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공감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여의치 않다. 그렇기에 짧은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잠재력이 극대화되고 자기 성찰을 통한 내면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며 생활화가 되어 교수자가 없을지라도 스스로 변화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알려주는 방법이나 지시 없이도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성찰, 내면화와 생활화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코칭 방법론(최인숙, 2019)이 학생들이 공감 프로그램을 통하여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 느끼고 성찰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공감을 생활화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

코칭은 자각 능력을 높여주어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방법이나 지시 없이도 스스로 발전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준다. 그러므로 코칭은 단기적으로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하며(도미향 외, 2014) “고객 안에 정답이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경청과 질문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준다(김영기, 2014).

이에 공감훈련을 짧은 기간 훈련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장·발전하도록 코치가 지지하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학생들이 성취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봄으로써 스스로 느끼고 변화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코칭(이소희 외, 2016; 황현호·도미향, 2017)을 통하여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감훈련을 그룹 코칭으로 하면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상호 협력하며 학습하고 공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겨 일상생활에서 또래를 공감할 수 있게 하여 공감 능력이 향상하고 더불어 자기조절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공감코칭프로그램과 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공감코칭프로그램이 자기조절능력과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의 공감코칭프로그램 개발은 어떠한가?
2. 초등학생의 공감코칭프로그램은 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에 효과를 미치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초등학생의 자기조절능력

자기조절능력은 인지적 요인, 동기적 요인, 행동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전지영, 2019) 개인이 속한 환경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환경의 요구에 맞게 대처하고 상황적 요구에 따라 개인의 인지·정서·행동을 조절하여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노혜영, 2015)을 말한다.

또한, 자기조절능력은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기 때문에 자기조절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 자기조절능력이 증진되면 학생들은 어떤 일에 대해 반응 적이기보다 상황을 앞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등학교 시기의 이루어진 행동 변화가 그 후에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도 일어나는 일반화가 되며 학습한 행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얻게 된다(노혜영, 2015). 이러한 긍정적 영향 때문에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게 시키는 것은 초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되었다.

2. 초등학생의 의사소통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을 말한다(박은하, 2018).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정서 발달상 또래에 대한 애정이 커지고, 상황에 대한 비판 능력이 생기게 되면서 분노를 자주 느끼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평가하여 자기 위안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생긴다. 반면 대인관계발달 특성상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의사소통훈련을 통해 기능적 의사소통능력의 밑바탕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임선숙, 2017).

의사소통은 개방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는데 개방적 의사소통 요인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호작용에 자유로운 감정 래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의사 표현을 사실적

으로 할 수 있는가이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면을 말한다(최혜림, 2017).

3. 초등학생의 공감코칭프로그램

1) 공감

공감은 초등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이다. 공감적 관심을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의 고통을 줄이려는 동기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공격 행동이 감소하게 된다(박소정, 2017). 친구 관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에게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질과 또래의 애착을 향상하게 시키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바탕이 되어 또래 애착이 좋아지면서 개인의 행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신민정, 2017).

공감 능력이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 등이 결합한 다차원적인 개념을 의미하며 공감 능력의 인지적 요소는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 등을 미리 짐작해보는 과정으로서 상대방의 역할이나 관점의 수용, 상대방의 생각과 정서 인지가 포함된다. 정서적 요소는 공감으로 인해 상대방의 정서를 대리 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등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주영, 2019). 또한, 의사소통적 공감으로 공감의 개념이 확대되어 “공감은 그의 삶을 이해하며 판단하지 않고 그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의미까지도 알도록 하고 나아가 그러한 세계를 전달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Rogers, 1975)라고 하였다. 의사소통적 표현 기능으로서 공감은 관찰과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수량화할 수 있는 조작적 기능이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Truax & Carkhuff, 1967)고 하였다.

2) 코칭 프로그램

(1) 코칭의 개념

코칭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국제코칭연맹(ICF)은 코칭은 코치와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견 프로세스를 통해 목표설정, 전략

적인 행동, 그리고 매우 뛰어난 결과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강력하면서도 협력적인 관계이며 코치가 코칭을 받는 사람에게 직업적 또는 개인적인 성과를 향상하게 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이라고 정의한다(도미향 외, 2011). 한국코치협회(KCA)는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정의한다(<http://www.kcoach.or.kr>). 한국코칭학회는 코칭은 고객과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도와 개인의 삶을 고객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조직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코칭의 개념은 치료, 상담, 훈련, 교육, 컨설팅, 관리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코칭은 일반적으로 상담 분야, 교육 분야,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념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도미향 외, 2011).

코칭 관련 개념의 정의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코칭 관련 개념의 정의

구분	정의
상담	상담을 받는 개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 상담자는 관련 지식을 통해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
치료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약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
훈련	학습과 경험을 통한 지식, 혹은 기술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트레이너는 전문가로서 직접 지식과 기술 전수
교육	학생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통제하는 행위로서 학생은 직접 배움
컨설팅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컨설턴트가 주도하여 현상들을 관찰, 종합하여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진단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
멘토링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식이나 기술,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출처: 도미향 외(2011)를 연구자가 재정리

(2) 코칭의 모델

코칭과 다른 상담기법과 가장 큰 차이는 코칭은 코치와 고객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구조화된 대화 모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미향 교수가 2011년에 개발한 한국코칭학회의 공식 프로그램 CPA 코칭 모델을 사용하였다. CPA 코칭 모델은 C-PLUS 코칭 패러다임, 코칭 기술, 코칭 대화 모델 Active 세 그룹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코칭 환경을 마련하고 좋은 성과를 도출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C-PLUS 코칭 프로그램은 코칭을 통한 삶의 플러스라는 의미가 있고 각 스텝을 근간으로 실행 모델을 제안하였다. 코치가 코칭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끄는 하나의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를 통해 체화되도록 한다(도미향, 2019).

첫 번째, C(Coaching)는 코칭의 개념, 철학, 필요성, 환경 등을 이해하게 된다. 두 번째 P(Professional)는 코치의 전문성을 갖추는 코치로의 역할, 사명, 패러다임 등 코치의 내적 동기, 비전, 사명 등을 세우고 다짐하게 된다. 세 번째 L(Love)은 코치의 역량으로 코치다운 자세, 즉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춤추는 코치의 코칭 기술을 의미한다. 네 번째 U(Unique)는 코치가 고객만의 특별하고, 독창적인 탁월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의 강점, 행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다섯 번째 S(Service)는 모든 사람은 원천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칭을 통해 타인과 조직에 헌신할 기회를 주고 코치가 고객만의 탁월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ACTIVE 코칭 대화 모델을 활용하여 코칭 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도미향, 2019).

(3) 초등학생의 코칭 프로그램

경영학 분야에서 연구되는 코칭은 조직 강화나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되는 코칭은 학습자가 교사의 전문적 영역에 대해 피드백하거나 질문을 하여 아는 것을 행동하도록 돕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김주연, 2015) 교육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코칭을 접목한 프로그램과 교육의 시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김하나·김혜연, 2015).

지금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코칭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학습 및 진로코칭(곽병희, 2017; 문주연, 2018; 박은경, 2015; 안명환, 2016; 하정아, 2019)이 대부분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 공감교육과 코칭을 결합한 프로그램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자는 초등학생의 공감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감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의 자기조절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Ⅲ. 초등학생 공감코칭프로그램 개발

1. 초등학생 공감코칭프로그램 개발 단계

본 연구의 기본방향은 초등학생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하여 자기조절능력과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또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코칭 기술을 사용하여 초등학생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PLUS 코칭 대화 모델을 사용하여 초등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줌으로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 느끼고 성찰하여 공감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생활화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초등학생 공감코칭프로그램 구성체계

초등학생의 공감코칭프로그램 개발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은 설계→개발→실행→평가의 진행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먼저 공감 교육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시사점을 찾고 이를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공감코칭프로그램의 개념과 하위요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코칭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타당성을 위하여 전문가 3인의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으며, 누구나 내면에 창의적이고 변혁적인 해답이 있다는 코칭 철학을 바탕으로 하며 Barrett-Lennard(1981)의 순환적 공감모형을 토대로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으로 나누어 C-PLUS 코칭기술을 바탕으로 Active 코칭 대화 모델을 대화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코칭 대화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내적 통제성을 강화하여 공감 능력을 향상해 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데 있다. 둘째, 자신의 공감과 타인의 공감을 통해 행동에 대한 실천 의지로 의사소통적 공감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셋째, 코칭의 양방향 소통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코칭기술과 피드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지속적인 성공 경험과 긍정적 정서 지원을 통해 코칭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위의 목표를 토대로 한 초등학생의 공감코칭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생 공감코칭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회기	단계	관련 요인	목표
1	도입	인지	프로그램 목적을 알고 이해, 라포 형성
2	공감의 이해	인지	적극적 경청
3		인지, 정서	감정에 대해 이해, 다양성 인식
4	공감의 실제 1	인지, 의사소통	타인의 감정인식, 이해
5		정서, 의사소통	타인의 상황/느낌에 대해 공감적 관심
6	공감의 실제 2	의사소통	타인 이해, 존중하는 표현 익히기
7		의사소통	자기 개방, 공감적 지지, 친구의 감정 지지
8	마무리	정서, 의사소통	프로그램 정리, 실천 의지 다지기

전체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었으며, 회기별 진행은 60분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회기마다 Active 코칭 대화 모델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회기별 목표에 적합한 동영상과 동화, 역할극 등의 활동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공감코칭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공감 코칭 프로그램 내용

회기	제목	관련 요인	목표	주요활동내용
1	안녕, 반가워!	인지	프로그램 목적을 알고 이해한다. 상호 간의 라포를 형성한다.	프로그램 소개, 집단활동 약속 정하기 사전검사, 진진가 게임
2	나를 그려봐	인지	경청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말로 하는 설명을 듣고 그림 그리기 원본 그림과 맞춰보기
3	감정을 맞춰봐	인지, 정서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해한다.	감정표현 게임
4	행감바 인사약	인지, 의사소통	자신의 감정 파악 공감적 표현 익히기	I-메시지 연습

5	검정 고무신	정서, 의사소통	타인의 상황과 느낌에 대해 공감적 관심	검정 고무신 동영상 시청 등장인물의 감정에 대해 나누기 공감적 의사소통 연습
6	찍서방과 쥐앙반	의사소통	존중하는 표현 익히기	‘찍서방과 쥐앙반’ 동화 듣기 역할극, 존중하는 표현 연습
7	너의 손도장	의사소통	자기 개방, 공감적 지지 친구의 감정 지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서로의 손 그려주기 친구의 손도장에 친구의 강점, 즐거운 기억, 고마운 점 적기
8	나는 공감 왕	정서, 의사소통	프로그램 정리 실천 의지 다지기	사후검사 BEST 장면 뽑기, BEST 친구 뽑기 공감 왕 뽑기 증명

3. 초등학생 공감코칭프로그램의 내용

본 프로그램은 2019년 9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18일까지 U 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21명과 통제집단 21명으로 나누어 주 1회 60분씩 총 8회기로 진행되었다.

1회기는 코칭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8회기 동안 함께 할 친구들과 진진가 게임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2회기와 3회기는 공감이 무엇인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 경청과 감정의 다양성에 대해 알도록 하였다.

4회기와 5회기는 공감의 실제 1로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주로 하여 나의 감정과 친구의 감정의 이해하고 수용하여 나와 친구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6회기와 7회기는 공감의 실제 2로 실제적인 의사소통적 공감을 하기 위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감정을 공감적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8회기는 마무리 단계로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의 서로에 대한 칭찬과 지지를 하며 수료식을 진행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회기마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Active 코칭 대화 모델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코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IV. 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검증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U시에 소재한 K지역아동센터를 이동하고 있는 초등학생 3~6학년 아동 42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군은 3학년 7명(33.3%), 4학년 6명(28.6%), 5학년 6명(28.6%), 6학년 2명(9.5%)으로 3학년생이 가장 많았고, 6학년이 가장 적었다. 실험군의 성별은 남학생이 17명(81%)이었고 여학생은 4명(4%)으로,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통제군의 경우 3학년 7명(33.3%), 4학년 6명(28.6%), 5학년 6명(28.6%), 6학년 2명(9.5%)으로, 학년별 비율은 실험군과 동일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11명(55.0%)이었고 여학생은 10명(45.0%)이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실험군		통제군		전체	
		N	%	N	%	N	%
학년	3	7	33.3	7	33.3	14	33.3
	4	6	28.6	6	28.6	12	28.6
	5	6	28.6	6	28.6	12	28.6
	6	2	9.5	2	9.5	4	9.5
성별	남	17	81.0	11	55.0	28	68.3
	여	4	19.0	10	45.0	14	31.7
전체		21	100	21	100	42	100

2) 연구도구(측정도구)

본 연구의 검사 도구 중 자기조절능력 검사 도구는 허정경(2004)이 개발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이상희(2009)가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조절능력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표 5>). 인지적 요인은 기억, 지식, 정보의 부호화와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11개 문항, 동기적 요인은 능력에 대한 신뢰, 과거 경험과의 연계, 목표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8개 문항, 행동적 요인은 충동성, 스트레스, 또래 압력, 감정에 관한 내용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요인	영역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인지적	기억	1, 2, 3	11	.820
	지식	4, 5, 6		
	정보의 부호화 해석	7, 8, 9, 10, 11		
동기적	능력에 대한 신뢰	12, 13, 14, 15	8	.741
	과거 경험과의 연계	16, 17		
	목표조정	18, 19		
행동적	충동성	20, 21	8	.723
	스트레스	22, 23		
	또래 압력	24, 25		
	감정	26, 27		
계			27	.856

※역 채점문항 5, 12, 20, 21, 22, 23, 24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 도구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측정 도구를 박건자(2001)가 또래 간 의사소통 측정 도구로 재제작한 것을 김은미(2003)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2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6>). 개방적 의사소통 요인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호작용에 자유로운 감정 아래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의사 표현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의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요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김은미(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개방적 의사소통 .80, 역기능적 의사소통 .80, 의사소통

능력 전체문항 .87이었다. 이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는 개방적 의사소통 .75, 역기능적 의사소통 .76, 의사소통능력 전체문항 .81이었다.

<표 6> 의사소통능력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개방적 의사소통	5, 6, 7, 8, 9, 10, 11, 14, 15, 16(5,7,8,9,10,11,14,16)	10	.795
역기능적 의사소통	1, 2, 3, 4, 12, 13, 17, 18, 19, 20	10	.816
		20	.756

※역채점문항 1, 2, 3, 4, 12, 13, 17, 18, 19, 20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공감코칭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조절,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실험집단에 공감코칭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통제집단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전·사후검사만 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표 7>과 같다.

<표 7>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한 실험설계

집단	사전검사	실험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	O2
통제집단	O3		O4

X: 실험 처치(공감코칭프로그램 실시)

O1, O3: 사전검사(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 검사)

O2, O4: 사후검사(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감코칭프로그램이 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즉, 개입의 효과는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변화($O_2 - O_1$)에서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변화($O_4 - O_3$)를 제한 점수의 차이로 알아볼 수 있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

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에 의한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시행 전에 동질성 확인을 위해 각 집단 사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넷째, 실험군과 통제군의 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각 그룹의 실험 전과 후의 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2. 프로그램 효과검증

1)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공감코칭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각 집단의 자기조절능력 사후검사 결과에 대한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의 경우 실험집단(M=3.721)이 통제집단(M=2.914)에 비해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보였으며($t=5.908$, $p<.001$), 인지 요인($t=3.747$, $p<.01$), 동기 요인($t=4.962$, $p<.001$), 행동요인($t=4.473$, $p<.001$) 등 하위변인 모두 실험-통제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8>). 즉, 공감코칭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자기조절능력이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8> 실험 후 그룹의 자기조절능력 차이

변수	집단	N	M	SD	t	p
자기 조절 능력	인지	실험	21	3.472	3.747**	.001
		통제	21	2.714		
	동기	실험	21	3.762	4.962***	.000
		통제	21	2.796		
	행동	실험	21	3.929	4.473***	.000
		통제	21	3.232		
	전체	실험	21	3.721	5.908***	.000
		통제	21	2.914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공감코칭프로그램 실험집단의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 결과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paired t -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9> 실험군의 실험 전과 후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변수		통계치	실험집단		대응차		t	p
			사전(N=21)	사후(N=21)	사후-사전M	사후-사전SD		
자기 조절 능력	인지	M	2.697	3.472	.775	.612	5.806***	.000
		SD	.429	.550				
	동기	M	3.020	3.762	.741	.728	4.668***	.000
		SD	.457	.613				
	행동	M	2.923	3.929	1.006	.765	6.026***	.000
		SD	.595	.513				
	전체	M	2.880	3.721	.841	.500	7.712***	.000
		SD	.317	.470				

* p<.05, ** p<.01 *** p<.001

자기조절능력의 경우,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평균은 2.880(SD=0.317)이었고, 사후검사는 평균은 3.721(SD=0.470)로 공감코칭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평균 0.841점이 향상되었다(t=7.712 p<.001). 하위변인 중, 인지 요인은 평균 0.775점이 향상되었고, 동기 요인은 평균 0.741점, 행동요인은 평균 1.006점이 향상되었다. 이는 공감코칭프로그램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의 변화 정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감코칭프로그램 통제집단의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 결과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paired t - 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자기조절능력의 사전-사후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0> 통제군의 실험 전과 후 자기조절의 차이

변수		통계치	통제집단		대응차		t	p
			사전(N=21)	사후(N=21)	사후-사전M	사후-사전SD		
자기 조절	인지	M	2.957	2.714	-.242	.903	-1.230	.233
		SD	.684	.746				
	동기	M	3.061	2.796	-.265	.736	-1.652	.114

		SD	.514	.648				
	행동	M	3.226	3.232	.006	.693	.039	.969
		SD	.563	.496				
	전체	M	3.081	2.914	-.167	.531	-1.444	.164
		SD	.471	.414				

* p<.05, ** p<.01 *** p<.001

2)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공감코칭프로그램 실험집단의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 결과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paired t -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의사소통의 경우,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평균은 3.158(SD=0.485)이었고, 사후검사는 평균은 3.654(SD=0.515)로 공감코칭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0.496점이 향상되었다(t=4.243 p<.001).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 하위변인 중 개방적 요인은 프로그램 시행 후 평균 0.974점이 향상되어 실험 전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7.444, p<.001). 따라서 공감코칭프로그램은 아동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변화 정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역기능적 요인의 경우 사전-사후 간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 실험군의 실험 전과 후 의사소통의 차이

변수		통계치	실험집단		대응차		t	p
			사전(N=21)	사후(N=21)	사후-사전M	사후-사전SD		
의사소통	개방적	M	3.011	3.984	.974	.599	7.444***	.000
		SD	.474	.429				
	역기능적	M	3.305	3.324	.019	.890	.098	.923
		SD	.577	.901				
	전체	M	3.158	3.654	.496	.536	4.243***	.000
		SD	.485	.515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공감코칭프로그램 통제집단의 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척도의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 결과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paired t -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제집단의 경우 자기조절능력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모두 사전-사후검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통제군의 실험 전과 후 의사소통의 차이

변수		통계치	통제집단		대응차		t	p
			사전(N=21)	사후(N=21)	사후-사전M	사후-사전SD		
의 사 소 통	개방적	M	3.053	2.984	-.069	.763	-.413	.684
		SD	.728	.332				
	역기능 적	M	3.371	3.529	.157	.684	1.053	.305
		SD	.674	.663				
	전체	M	3.212	3.256	.044	.576	.351	.729
		SD	.567	.388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초등학생의 공감 능력 향상 코칭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공감교육과는 달리 학생들 스스로 흥미와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CPA 코칭모델을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발표하며 주도적으로 코칭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셋째,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감의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감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즉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긍정의 피드백을 통해 강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답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코치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활동에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을 인식하고 동기부여를 하여 강점을 극대화해 변화하는 행동 의지를 갖도록 하였다. 다섯째, 공감 능력 향상에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동적인 측면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구성된 프로그램이 자기조절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인 U 지역의 K 지역아동센터 3~6학년 21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 1회 총 8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자기조절능력, 의사소통능력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코칭프로그램은 자기조절,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조절, 의사소통의 점수가 고르게 높아졌다는 것은 공감코칭프로그램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가 적절히 안배되어 진행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훈련이 자기조절,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같다(김운희, 2016; 박소정, 2017; 신민정, 2017; 허순향, 20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코칭프로그램은 자기조절,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조절, 의사소통의 점수가 고르게 높아졌다는 것은 공감코칭프로그램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가 적절히 안배되어 진행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코칭대화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내적 통제성을 강화하여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자기조절 능력,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본 연구자의 프로그램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초등학생들의 공감코칭프로그램의 필요와 그 활용 가치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공감과 코칭을 결합한 초등학생의 공감코칭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코칭 모델과 코칭 대화 모델을 적용하여 코치와 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으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토대로 긍정적인 자기 변화에 영향을 끼쳤으며 공감코칭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조절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코칭 철학을 기반으로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기대한 효과를 얻었고 그룹 코칭을 통해 친구들과 상호 협력하며 학습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지하고 응원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 능력이 향상하고 더불어 자기조절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U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토대로 중학생, 고등학생 등 연구 대상을 다양하게 하여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이 끝나고 실시한 사후검사 외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실험집단의 공감 능력의 변화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감코칭프로그램이 자기조절, 의사소통 외에 다른 정서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부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병희(2017). 학원의 학습코칭 프로그램 활용이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19). 2019.08.27.(화) 석간보도자료.
- 권현숙(2015). 초등학생용 감정카드와 바람카드 개발 및 공감능력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학위논문.
- 김신영(2017). 공감대화카드 활용 교육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기(2014). **코칭대화의 심화역량: 당신도 탁월한 코치가 될 수 있다**. 서울 : 북마크.
- 김윤희(2016). 공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북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 김은미(2003).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의사소통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2015).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하나·김혜연(2015). 진로코칭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코칭연구**, 8(1), 59-78.
- 노혜영(2015). 초등 통합학급에서 실행한 자기조절 증진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통제력, 또래지원 및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과 박사학위논문.
- 도미향(2019). 전문코치양성을 위한 CPA코칭모델 개발 - ACTIVE코칭대화모델 기반 C-PLUS 코칭프로그램. **코칭연구**, 12(3), 95-112.
- 도미향·정미현·김응자(2011). **성격과 코칭의 이해**. 서울 : 신정.
- 도미향·길영환·김혜연·이소희(2014). **코칭학개론**. 서울 : 신정.
- 문주연(2018). 자기탐색 진로코칭 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생의 진로 인식에 미치는 효과.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건자(2001). 또래상담훈련이 중학생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관련태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정(2017).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및 언어폭력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2015). 아동의 수학 자기효능감을 위한 수학적 의사소통 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하(2018). 초등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백워드 설계 기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적용.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정(2017). 감정카드와 바람카드를 활용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또래애착과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환(2016). 코칭기반 진로탐색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리더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2009). 초등학생의 성공지능과 자기조절력 및 학습태도와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김경미·박현정(2016). Treasure Talk 코칭 모델을 활용한 유아기 교사-어머니의 상호작용 교육·훈련 효과. **코칭연구**, 9(2), 5-28.
- 이주영(2019). 초등학생의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모바일 앱을 활용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선숙(2017). 의사소통훈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영(2019). 초등 수학영재학급과 일반학급의 학부모 양육태도와 학생의 정서지능 및 자기조절능력의 상관관계 비교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숙(2019). 코칭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초등학교 실험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혜림(2017).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아(2019). 리더십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코칭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인(2014). 초등교육과정에 삽입된 공감향상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공감능력 및 공격행동과 통합학급의 학급풍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순향(2018). 공감능력 척도 및 프로그램 개발. 대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박사학위 논문.
- 허순향·남윤주·남승규(2019) 공감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2), 109-116.
- 허정경(2004).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 개발과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현호·도미향(2017). 전문코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코칭역량에 대한 탐색적 연구. **코칭연구**, 10(2), 53-80.
- Rogers, C. R.(1975). Empathy: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 2-10.
- Truax, C. B. & Carkhuff, R. R.(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 국제코치연맹(2019). <https://coachfederation.org/code-of-ethics>
- 한국코치협회 <http://www.kcoach.or.kr>
- 한국코칭학회(2017). www.koreacoaching.kr

Abstract

Development and Effect of an Empathy Coaching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im, Eun Young* · Kim, Eung-j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aching program to improv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pathy for peer relationship attachment and a happy and enjoyable school life. Elementary students can motivate themselves by using coaching techniques to present their opinions rather than the vertical teachings of teachers, and to use the C-PLUS coaching dialogue model to give positive feedback to elementary students. Rather than giving answers on how to improve abilities, various activities help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internalize and live empathy.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mpathy coaching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veloped in this study, self-regul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were divided into pre-test and post-test. The even higher scores of self-regul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uggest that the cognitive, emotional, and communicative elements of the empathy coaching program were properly arranged.

In addition, the program goal of the researcher was consistent in that elementary students' empathy was improved by improving their empathy ability by strengthening their positive emotion and internal control through coaching conversat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ed for coaching programs and the value of their use.

Key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 empathy, coaching, self-regulation, communication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aching, Namseou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